

박두진 시에 나타난 상상력의 세 층위

정숙인*

|| 차례 ||

- I. 서론
- II. 자연에 투사되는 상상력과 이상향
- III. 현실주의적 자기 강화와 갱신의 상상력
- IV. 신성을 향한 화해의 상상력
- V. 결론

【국문초록】

1930년대 말은 문학 전반에 있어서 정신사적으로나 문학사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그 후 1990년대까지 박두진의 시세계는 대략 어떠한 방향으로 모색해왔는지, 그의 시세계에서 드러나는 자연, 인간, 신의 관계에 대한 상상력의 세 층위를 논의하고자 한다.

박두진은 시대적 고뇌와 갈등을 자연에 투사하는 것만이 자신을 구축해낼 수 있었고, 이러한 자연의 생명력은 존재의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종교적 이데아와 이상향을 추구하기에 이른다. 그에게 자연은 객관적 대상으로서 구체적인 사고의 틀을 형성할 수 있는 동력이며, 시세계에 나타나는 역사의식이나 생명에 대한 긍정의 힘 또한 죽음까지도 극복해낼 수 있는 의지의 표현으로 작용한다.

현실주의적 자기 강화와 갱신의 과정에서는 초기 자연시와는 다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신을 표출하고 있다. 4·19에 대한 시적 인식은 역사의 격변기를 반영하듯이 시와 현실의 관계에 대한 격렬한 시상을 통해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직접적인 태도를 지향했으며, 그것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내는 절규이자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인 것이다.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또한 신성을 향한 화해의 상상력에서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의 세계를 통합하는 복합체로서 여기에서 ‘돌’은 근원적인 일체감을 나타낸다. ‘돌’은 시인에게 있어서 정신의 표상이자 신앙의 상징으로서 그것은 존재를 생성하는 이미지의 역동적인 발로이며 신성을 지향하는 화해의 통로인 것이다.

이렇듯 박두진의 시세계는 자연에 투사되는 상상력과 이상향, 현실주의적 자기 강화와 갱신의 과정, 신성을 향한 화해의 상상력에 대한 구조를 통해 초기, 중기, 후기의 매 시기마다 차별성을 갖지만 서로 변증법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상상력의 세 층위를 형성한다. 이러한 양상은 격변기를 살아내는 박두진만의 미학적인 깊이와 가치지향적인 세계이며, 한국문학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주제어 : 박두진, 투사, 이상향, 갱신, 화해, 돌, 신성, 층위

I. 서론

박두진(1916~1998년)은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호는 ‘있는 그대로의 산’의 뜻인 해산(兮山)이다. 정지용의 추천으로 『향현』, 『묘지송』(1939년)을 『문장』에 발표, 그 후 『낙엽송』, 『의(蟻)』, 『들국화』(1940년)등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그리고 박목월·조지훈과 함께 청록파의 한 시인으로서는 『청록집』(1946년)과 개인시집 17권, 시선집 7권을 포함 24권의 시집을 출간했다. 그의 시는 주로 자연에 관한 문제, 혹은 기독교적인 그의 태도에 집중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시 안에서 비판의식이나 자연주의적 경향, 그리고 종교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신선한 공감을 일으키는 이미지의 역동적인 상상력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것은 외부의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시속에 내재된 상상력의 특성으로 이미지나 상징들이 가리키는 ‘울림’에서 비롯된다.

시적 상상력은 시인만이 갖는 몽상의 세계로 시적 이미지가 의식에 현상하는 순간의 역동적인 장면을 나타낸다. 이는 사물의 형상에 내재된 질료적 요소들이 자유롭게 변형하는 데서 발견되며, 바슐라르는 ‘반향’이나 ‘울림’은 곧 상상력이 발현되는 장소이며, 존재 생성의 힘¹⁾이라고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상상력은 낭만주의를 선호했던 코올리지(Coleridge)에 의해 확인해볼 수 있으며, 그는 상상력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²⁾ 일차적인 상상력(primary imagination)을 우리 자신과 외부세계를 지각하는 보편적인 차원의 상상력으로 해석한다. 신화나 종교 또는 인류 공통적인 기억인 집단 무의식에서 발현되는 원형적인 요소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더불어 이차적인 상상력(secondary imagination)은 독창적이고 새로운 의미의 조화로서 화해의 의미를 지향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이미지나 신화 등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진보적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낭만주의적 경향에 비추어볼 때 박두진 시에서 나타나는 상상력에 대한 논의는 타당하다.

박두진의 시에서 발견되는 이미지의 세 층위는 자연, 인간, 신의 원형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시집『거미와 성좌』의 자작시 해설에서도 밝혔듯이 시인 자신의 시세계를 이루는 ‘자연’과 ‘인간’, ‘신’의 관계³⁾에 대한 세 층위를 자연스럽게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상력을 토대로 박두진 시의 소재와 의식의 변모양상을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에서는 자연을 통해서 역사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낸『청록집』, 『해』, 『박두진 시선』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어 중기는 역사와 사회, 그리고 인류에 대한 현실지향적인 시기로 『거미와 성좌』, 『인간 밀림』, 『하

1) Gaston Bachelard, 광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p.82.

2) 이승훈, 『시론』, 태학사, 2005, p.67.

3) 박두진,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97, p.451.

얀 날개』, 『고산식물』, 『오도』를 들 수 있고, 후기는 『사도행전』, 『수석열전』, 『속 수석열전』, 『포옹무한』등 수석을 통한 기독교적 신앙과 통합 및 화해의 시기로 개인적인 신앙은 물론 민족과 역사의 구원을 위한 열정을 드러낸다.

이렇듯 박두진의 시세계는 1940년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자연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50년대와 60년대 현실주의적 자기 강화와 갱신의 과정, 그리고 70년대 신성을 향한 초월의지와 통합된 화해의 세계를 아우르는 과정으로써 서로 변증법적인 구조⁴⁾로 펼쳐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매시기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의 세 층위에 대한 의식들이 단절되지 않고 상호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박두진 시의 상상력의 세 층위에 대한 접근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박두진 시의 근원적인 상상력의 구조를 파악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II. 자연에 투사되는 상상력과 이상향

1930년대 말은 시대적으로 암담한 시기였다. 조선어교육을 금지시키고, 문학인들의 유일한 발표공간이었던 『문장』이나 『인문평론』을 폐간시켰다. 이 시기를 암흑기⁵⁾ 또는 공백기⁶⁾라고 평하기도 한다. 친일문학이 한국문학의 전반을 차지하던 시대에 이를 피해 해방 이후 시를 발표했던 박두진은 직접적인 투쟁은 하지 않았지만 자연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기 사고의 틀을 형성하였다. 이때의 자연은 인간 이성에 의해 구획될 수 있는 대상이

4) 김응교, 『박두진의 상상력 연구』, 박이정, p.64.

5)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서울: 백양당, 1949, p.375.

6)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서울: 성문각, 1969, p.586.

면서 자연을 객관적 대상으로 사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자연에 미학적 의미를 부여⁷⁾한 칸트의 ‘자연미’의 경향과도 일면 상통하는 것으로 우리 현대시에서의 1930년대는 근대 이후 가장 창조적인 시기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때의 우리민족은 정신사적으로나 문학사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중 하나로 ‘모더니즘 운동⁸⁾’의 대두이다. 문학이 언어예술이라는 미적 근대성의 자각을 통한 다양한 시적 방법론을 모색하는데 많은 기여⁹⁾를 했지만 전통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시창작 방법론을 거부하고 서구 문예이론의 형식적 새로움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두진의 경우 모더니즘의 경향인 기교주의적 전개방식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시세계를 지향해 왔으며, 추천 당시 정지용은 “식물성” 또는 “신자연”이라고 박두진의 시세계를 평가했다. 시는 “소극적인 무력한 도피가 당시의 우리에게서 적극적이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였”¹⁰⁾다고 진술하듯이 1941년 『문장』이 폐간되고 친일문학 공간인 문인보국회의 입회를 강요받는 상황에서도 “청록파의 자연은 현실 도피 장소로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조국과 문화에 대한 향수로서의 자연”¹¹⁾으로 향해 있었다. “목월은 향토적인 정서를 세련된 가락에 실어 한국의 자연을 형상화한 데 비해, 지훈은 선적인 동양의 자연을 이룩해 놓았으며, 두진은 우리나라 시가 일찍이 가져보지 못한 이데아(idea)의 세계를 육화”¹²⁾시켜 참신

7) Donald Crawford, 김문환 역, 『칸트의 미학이론』, 서광사, 1977. p.173.

8) 영·미 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흄(T. E. Hume), 파운드(E. Pound), 엘리엇(T. S. Eliot)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는 이상(李箱)을 비롯 『삼사문학(三四文學)』동인, 또는 김기림, 정지용, 김광균, 장만영, 장서언 등을 들 수 있다.

9) 송기환, 『한국현대시의 근대성 비판』, 제인앤씨, 2009, p.36.

10) 박두진,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70, p.377.

11) 조병춘, 『한국현대시평설』, 태학사, 1995, p.324.

12) 조병춘, 위의 책, p.325.

한 자연시를 구축한 것이다.

하지만 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더욱더 전시체제에 돌입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문학은 인간적인 접근법을 강조하게 된다. 진보적인 측면으로서의 카프문학의 퇴조 및 ‘순수문학’과 이미지즘이 중심인 ‘모더니즘’ 운동 등 이러한 경향성 외에도 현실 대응의 방식이면서 시적 자아에 충실하고자 하는 태도는 시인들이 자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시점이며, 박두진은 “자연은 긍정의 객관적 등가물”¹³⁾로서 접근해간다.

나는 자연 그때의 누구나가 그러듯이 이러한 민족적인 현실에 대한 정치적 의분과 반항의식, 어쩔 수 없는 강압에 대한 억울한 인욕(忍辱) 내지는 어디 두고 보자고 버리는 대기태세가 이 당시의 내 시들의 주요한 창작계기였고, 그러기 위하여는 그들의 강압검열의 옥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직접적인 표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러한 정세에서 타개(打開)된 시의 길이 ‘정치’나 ‘사회’나 ‘세계’보다는 유일한 혈로(血路)를 ‘자연’에다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⁴⁾

이렇듯 박두진은 정치·사회나 세계의 흐름보다는 자연을 통한 시세계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현실에 대한 정치적 의분과 반항의식’을 조용히 자연에 투사하는 것만이 자신을 구축해내는 일이었다. 코울리지는 창조적 자연과 인간의 정신을 연결시키는 힘이 바로 상상력이며 신화나 종교적인 세계관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박두진의 시세계에서 발견되는 자연친화적인 요소들을 볼 때 연관성을 갖는 것이다. 그의 초기 작품인 『묘지송』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시인의 내면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13) 박철희, 『박두진론』, 『서정과 인식』, 이우출판사, 1983, p.134.

14) 박두진, 『시인의 고향』, 범조사, 1958, p.183.

록 하겠다.

무덤 속 어둠에 하이얀 촉루(觸虬)가 빛나리. 향기로운 주검의 내도 풍기리.

살아서 설던 주검 죽었으며 이내 안 서럽고, 언제 무덤 속 화안히 비취줄
그런

태양만이 그리우리.

금잔디 사이 할미꽃도 피었고, 뻘이뻘이 배, 뱃종! 뱃종! 뱃새들도 우는데,

- 『묘지송』부분

위의 시에서는 주검이 누워 있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무덤 속 하이얀 촉루가 빛나’고 ‘주검의 냄새’ 또한 향기롭다고 하니 삶과 죽음은 대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무덤은 생명이 단절된 부정적 공간을 의미하지만 거기에 ‘금잔디’가 돌아나는 것은 시인의 낙관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엮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살아서 설던 주검 죽었으며”로 주검이 되었지만 서럽지 않는 주검이다. 당시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살아있을 지라도 죽어 있음과 같다는 의미이다. 비극적인 시대에 살아있음이란 ‘차라리 죽은 목숨’이나 같으며, 살아서 기꺼운 삶이 오히려 서러운 ‘주검’이며, 그 서러움은 차라리 죽음으로 해소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죽음은 재생과 부활의 공간이며, 서로 대립적인 차원이 아닌 동일한 공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세계이다. 또한 ‘태양은 ‘무덤 속을 화안히 비취줄’ 밝은 태양이며, 시인은 그러한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금잔디 사이의 할미꽃 핀 곳에서 “뻘이 뻘이 배, 뱃종! 뱃종!” 산새들 노래 부르는 평화로운 현실이 그려진다. 눈앞에

비취진 현실은 암담하지만 기쁨진 터에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머지않아서 밝은 세상이 열린 것이란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거기에 걸맞게 의성어 표현은 4음보에 음악성까지 가미하여, 현실성에 대한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인식이 연결되어 보다 더 생동감을 준다.

이 시는 제목에서 드러내는 것처럼 밝음보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구원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시 『향연』에서도 “산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같이 현실의 불안과 갈등은 자연의 생명력을 통해 오히려 종교적 이데아와 이상향을 지향하게 된다. 다음 시 『해』에서도 그의 낙관적인 시세계는 생명에 대한 강렬한 긍정을 나타내며, 죽음까지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장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 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여……,

…중략…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어이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그의 제1시집 『해』(1949년)에 실린 시로, “해”는 1946년 5월에 발표했지만 해방 전 쓰여진 시인 듯하다. 어둠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염원이 함축되어있다. “해”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해야 솟아라”라는 당당하고 명령적이면서 생동감이 넘친다. 떠오르는 태양은 창조와 탄생, 계몽을 의미¹⁵⁾하며 ‘말장게 씻은 얼굴’로 새로운 세계를 바라고 있다. 지금의 어둠은 산 너머로 물러가고 “이글 이글” 애똥 얼굴로 솟은 해를 바라는 마음이다. 2연에서는 ‘달밤이 싫고’ 눈물 같은 달밤이 싫다는 표현에서처럼 시인은 눈물의 달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달밤’은 어둡고 음습한 시적 자아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바라는 너(해)를 만나면 꽃, 새, 짐승들 모두 한 자리에 앉아서 고운 날을 누릴 수 있는 곳, 억압된 세상이 아닌 마음속에 바라는 곳에서 이상을 펼치며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염원하고 있다. 여기에서 해, 말장게 씻은 얼굴, 애똥 얼굴, 고운 해, 꿈, 꽃은 밝음의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어둠, 달밤, 눈물, 골짜기, 아무도 없는 뜰은 어둠의 상징을 리듬을 더해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시인은 밝음과 어둠, 긍정과 부정, 소멸과 생성의 이항대립적인 이미지들을 대비시켜서 시적 상상력의 구도를 잡고 있는 것이다. 바슐라르에 의하면 시적 상상력은 몽상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내부에 자리하는 존재생성의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전환을 이루게 한다. 그것은 정신적 창조의 힘이며, 상상한다는 것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¹⁶⁾으로 이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승화시키는 한 방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해”이미지는 빛의 상징이며, 『해』를 주제로 한 비슷한 유형의 시들(해의 노래, 『죽순 4호』, 『상아탑』에 실렸던 『해』)이 발표되기도 했다.

15) 이승훈, 앞의 책, p.320.

16) 광광수, 김현, 『바슐라르 연구』, 민음사, p.25.

그의 시의 근원을 이루는 ‘산’과 ‘해’의 동질성은 높음과 거대함과 밝은 내일과 영원성을 바탕으로 삶을 삶이게 만드는 존재론적인 힘이다.¹⁷⁾ 이는 그의 전시기를 관통하는 상상력으로써 신화나 종교를 아우르는 인류 공통적인 집단무의식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은 개인적, 시대적, 민족적인 어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징¹⁸⁾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자연을 통해서 인간과 신을 동시에 탐구하고자 했던 그의 시도를 확인해볼 수 있게 한다.

Ⅲ. 현실주의적 자기 강화와 갱신의 상상력

박두진의 현실에 대한 참여의식은 저항성에 있다.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내기 위한 방편의 하나가 자연을 의인화하여 내면을 표출하는 태도다. 당시의 상황은 정면대결이 불가능한 시기라서 간접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일이다. 동시대를 관통했던 김현승의 경우도 “가장 가치 있는 문제가 시의 대상이며, 종교의 세계 또한 삶의 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피력하고 있듯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의식이 시로 표현하는 일이다. “시인들은 자기의 절실함을 표현하려고 시를 쓰는 것”¹⁹⁾이며, 박두진 또한 “나에게 있어서 신앙시와 신앙시가 아닌 시의 구별이 불가능한 시, 시가 곧 종교적 신앙에 바탕하고 그 미학을 성취하는 것이며, 종교적 신앙 체험과 시적 체험이 궁극적으로 일치하는 시”²⁰⁾를 원하고 있다. 이처럼 박두진에게 있어서 시는 종교시를 바탕으로 한 이상주의적인 경향을 드러낸다.

17) 신동욱, 『우리시의 짜임과 역사적 인식』, 서광학술자료사, 1993, p.327.

18) 김응교, 앞의 책, p.99.

19) 이승하 편저, 『쓴다는 것의 의미』, 『김현승』, 새미, 2006, p.290.

20) 박두진, 『시적 번뇌와 시적 목마름』, 신원출판사, 1996, p.86.

백 천만 만만 억겁
찬란한 햇살이 어깨에 내립니다.
자꾸 더 나의 위에
압도하여 주십시오.

이리도 새도 없고,
나무도 꽃도 없고,
쟁 쟁, 영겁永劫을 별만 쬐는 나 혼자의 광야에
온몸을 벌거벗고
바위처럼 꿰어,

(…중략…)

당신은 나의 힘

-「오도」부분

위의 시 「오도」는 오후의 찬란한 햇살이 ‘백 천만 만만 억겁’을 다하여 강하게 압도하기를 바라는 고백적인 시다. 한 인간의 고뇌와 전 인류의 죄악, 그리고 비극을 비장한 어조로 다루고 있다. 2연에서 ‘이리, 새, 나무, 꽃’도 없는 곳에서 온몸을 다하여 바위처럼 ‘영겁’의 시간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정신의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다. 『청록집』(1946)에 수록된 시 「푸른 하늘 아래」2연에서 “이리들이 오르댄다./ 양떼가 무찔린다./ 이리들이 오르대며,/ 이리가 이리로 더불어 싸운다./ 살점들을 물어 뺀다./ 피가 흐른다./ 서로 죽이며 자꼬 죽는다./ 이리는 이리로 더불어 싸우다가./ 이리로 더불어 떨어리라.”를 떠올리게 된다. 당시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과 함께 침략과 야욕이 만주사변을 통해서 더욱 본격화된 일제 말의 암흑기였

다. “시에 대한 현실 참여의 문제를 우선 내가 가능한 한 한의 수법과, 또 당시 발표할 수 있는 한의 극점까지 도달시켜 보았다. 그중에서도 2연이 가장 나로서는 당시의 싸우는 부류, 전쟁의 수단으로 침략을 감행하고 약한 자를 정복하는 그 강포한 범법을 한 자에 대한 부동의 진리의 심판으로써 단죄하는 커다란 원리를 재확인해 보았던 것이다.”²¹⁾라고 시대 상황을 저항 비판하고 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화(不和)의 순간을 그 자신에게 내포한다”²²⁾는 아도르노의 말처럼 낙원회복의 꿈을 갈망하면서 신앙적 기다림을 예비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초기 자연시와는 다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신을 표출하고 있으며, 그의 모든 시에 있어서 시적 변모를 보이는 한편 현실주의적인 소재의 시편들이 나타나기에 이른다. 다음 시 「학」을 음미해보도록 한다.

푸른 하늘을 날으며 돈다
하늘에서 하늘로 종일 우날어도
어느 바닷가
흰 깃을 사려 접어 앉을 곳 바이 없는,
너는 목이 긴 한 마리의 鶴……

바다들은 설레어 몸부림치고
산에도 마을에도
타오르는 꽃같은 불길 무데기,
거리마다 번져가는 피의 무늬를
하늘을 우날으며 너는 본다.

- 「학」부분

21) 박두진 자작시 해설집, 『시와 사랑』, 신흥출판사, 1960, p.28.

22) 김주연, 「아도르노의 문화사회학」, 『예술과 사회』, 민음사, 1979, p.189.

이 시는 1953년에 발표된 시로 현실의 비애를 학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푸른 하늘을 종일토록 날며 돌고 돌아도 깃을 접어 쉴 곳이 없는 “학”이다. 시적 화자 역시 “학”과 다르지 않다. ‘산에도 마을에도 불길 무더기’ 뿐이다. 그리고 ‘피의 무늬’를 목이 긴 학은 물끄러미 보고 있는 것이다. 자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자아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을 모색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너 안에 흡수되지 않으면서 나를 잃지 않으면서 너의 타자성 안에서 나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²³⁾자신에 대한 끝없는 사유가 이어지며, 『학의 끝연을 보면 “너는 이 거릴 혼자서 걷는/ 나보다도 서러운 목이 길 鶴”에서처럼 ‘고독’은 시적 자아의 내면세계를 압도하는 서럽고 슬픈 한 마리 학이다. 눈을 뜨고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참담함을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하늘을 우날으며’ 보고 있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쓰여진 『거미와 성좌』에서도 박두진의 현실에 대한 견해는 이념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새까만 내장을 겹겹이 열어 피묻은 노을 빨아먹고는,
 당황목처럼
 선명한
 까만 황혼을 뿜어낸다.

서서히
 거미는
 이제야 실현해 볼 회심의 음모
 오늘의 짙은 황혼을 위한
 피묻은 계락을 퍼는 것이다.

- 『거미와 성좌』부분

23) Emmanuel Levinas,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p.112.

이 시에서는 암거미와 숫거미가 서로 먹히고 먹는 장면을 포착해내고 있다. ‘거미’이미지를 통해 당시의 모순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을 괴롭혔던 부조리와 부패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총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1950년대 당시 시에서는 부패한 실상을 풍자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시인(김지하의 『오적』(『사상계』,1970))도 있지만, 그와 달리 박두진의 시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지향한 상징시²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감각은 바다, 깃발, 하늘 등 높고 넓은 이미지로 확대되어 시집『거미와 성좌』를 비롯한『인간밀림』에서 더욱더 심화된다. 그리하여 1960년대의 4·19를 맞으면서 자기강화와 자기 갱신을 위한 인간중심적인 면은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불이여! 피여!
 그 오오래 우리에게 썩어내린
 악으로 불순으로 죄악으로 숨어내린
 그 면면한
 우리들의 핏줄 속의 썩은 것을 씻쳐내는,
 그 면면한
 우리들의 핏줄 속에 맑은 것을 솟쳐내는,
 아, 피를 피로 씻고,
 불을 불로 살워,
 젊음이여! 淨한 피여! 새 世代여!

-『우리들의 기빨을 내린 것이 아니다』부분

4·19에 대한 시적 인식은 역사의 격변기를 반영하듯이 설명할 수 없는

24) 김웅교, 앞의 책, p.99.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시와 현실의 관계에 대한 폭발적인 힘을 실제로 체험했던 당대의 시인들은 사회적 기능과 역할 또는 책임이나 의무를 제기하기도 했다. 문학이 현실과 유리되지 않고 민중의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의 논쟁은 문학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반성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 시기에는 박두진뿐만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의 절규이면서 세상을 향한 눈뜸이고 살아남기 위한 발돋움이다. ‘불이여! 피여!’ 이러한 강한 절규는 살아있음의 의미이다. ‘씩은 것을 씻쳐내’고 ‘맑은 것을 솟쳐내’어 ‘피를 피로 씻고’ ‘불을 불로 살’우다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염원과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 시 외에도 『우리는 보았다』, 『江물은 흘러서 바다로 간다』 등 강한 어조를 통한 혁명의 의지를 드러낸다. 이유식은 “현실에 뿌리를 둔 혁명적이고 민족적인 시인”이라고 박두진을 평가한다.²⁵⁾ 1960년대 이후 한국의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으며,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체제가 종식되었다고는 하나 사회는 여전히 대립과 혼란으로 뒤덮였고, 분열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시민들의 분노가 4·19를 통해서 분출되었으며, 박두진의 전체 시를 보더라도 4·19 이후에 쓰인 시들이 분명한 주장과 어조를 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박두진 초기시의 세계관 즉 시적 방법론과는 구별되는 중기시의 저항적인 동력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리”, “새”, “학”, “거미” 등 동물 상징을 통한 상상력의 작동은 일제와의 대항 그리고 독재와의 대립, 선과 악에 대한 이분법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으며, 이는 존재확인을 위한 자기강화와 갱신의 시간을 모색하는 것이다.

25) 이유식, 『박두진론- 변모한 시의 지평』, 『현대문학』, 1965, p.87.

IV. 신성을 향한 화해의 상상력

박두진은 신앙을 향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기에 이른다. 그의 시세계는 『수석열전』(1973)과 『속·수석열전』(1976)을 통해 자연과의 화해는 물론 신앙적으로도 귀의코자 하는 자세를 보인다. 그에게 “돌”은 단순한 자연이 아닌 예술품으로서 “돌”은 곧 ‘시’이고, ‘시’는 ‘나’가 되며, 그것은 “자연의 정수이자 핵심”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그의 『수석열전』자서에서도 밝히듯이 “詩와 水石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나와 水石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쓰고 또 써도, 찾고 또 찾아도, 그 하나로서의 두 世界, 바로 하나로서의 세 世界인 水石과 詩와 나는 늘 하나의 즐거움과 놀라움, 하나로서의 新鮮한 만남과 그 根源의인 一體性, 한 永遠한 相으로서의 궁극적인 到達을 체험하게 한 것”²⁶⁾이며, 돌과 시, 나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융합된 일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박두진에게 있어서 ‘돌’이 지니고 있는 형상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의 세계를 통합하는 복합체로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근원적인 일체감이다. ‘돌’의 의미는 유년기의 체험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고 자라온, 염량(念量)해오고 꿈의 세계처럼 동경해 온 가장 자연스럽고, 성정에 맞고, 수수하고, 쉽게 접근해서 성취할 수 있는 가능한 신境地(新境地)일 것”²⁷⁾에서와 같이 그의 자연은 시와 합일화된 것이다. 그것은 시인의 내면에 잠재된 근원적인 창조성의 산물이며, 이성과 감성을 조율할 수 있는 시인의 미적 형상화 방식이다. 그리하여 주관과 객관이 공존하는 세 세계의 만남은 존재생성의 묘미를 일으키는 이미지의 역동성이 발휘되는 지점이다.²⁸⁾ 시인이 이러한

26) 박두진, 「자서」, 『수석열전』.

27) 박두진, 「수석도」, 『돌과의 만남』, 청아출판사, 1986, p.33.

28) 광광수·김현, 『바솔라르 연구』, 민음사, 1981 p.269.

‘돌’을 주제로 시를 쓰는 것은 신앙시를 쓰기 위한 하나의 전초작업으로써 ‘돌’의 상징은 성경에서도 많은 구절을 점유하는 종교적 상상력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²⁹⁾

현대시에 있어서 영적 체험은 두 가지의 모순을 가진다. 하나는 ‘절대자’에 대한 거부의 의미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락하는 몸짓을 하게 된다.³⁰⁾ 이러한 양상은 자신의 모순을 통합하고 질서화하는 능력을 요구하며, 이때 ‘종교적 상상력’은 위대한 질서의 원리와 시적 근원지로서의 바탕이 된다. 그리하여 기독교 의식에 기반한 문학은 대개 성서에 근거하는 인간관과 우주관, 또는 초월적인 자기 성찰과 자기완성을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죄의 식이나 소망의지, 구원에 대한 갈망, 종말론적인 비전 등 다채로운 지점에서 분열된 자아와 세계를 아우르는 복합성을 나타낸다.

조용 조용 안의 새벽
 트고 있었네.
 나도 몰래 내 속에서
 트고 있었네.
 내 속에서 절로 트는
 순수 빛의 핵

-『사도행전』부분

위의 시는 나와 창조주와의 일체감을 노래하고 있다.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시인이 세계를 자기 내부로 끌어들이면서 그것을 인격화하는 ‘동화(assimilation)’의 원리와 자아와 세계가 일체감을 이루는 ‘투사(projection)’의 관계가 변증법적인 합일을 이룰 때³¹⁾ ‘시적 상상력’이

29) 이응교, 앞의 책, p.52.

30) Jacques Martain, 김태관 역, 『시와 미와 창조적 직관』, 성바오로출판사, 1985, p.198.

발현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도 ‘내 속에서 절로 트는’ ‘빛의 핵’은 존재의 ‘울림’으로 의미화되면서 그 존재는 확대의 중심에 위치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시를 말하게 하는 본래적인 상상력의 의미를 함축한다.³²⁾ 존재자는 자신에게 몰두할 수밖에 없으며, 동일성은 자신과의 무해한 관계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얽매임³³⁾으로 작용하여 그것은 자유로운 존재이면서 자신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역설이 따른다. 기독교의 성서에서 말하는 사도는 “겸허하면서도 치열하고 연약한 듯하면서도 불굴했던 의지를 바라보며 한 인간으로서의, 한 시대인으로서의, 한 민족인, 한 정신, 한 현대에 사는 고뇌와 시련과 그 수난의 주체로서의 나를 대상화하려는 의도였었다.”고 『사도행전』자서에서 진술하고 있듯이 시인의 내면화된 성숙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그의 시 「하늘」을 보면 “마시는 하늘에/ 내가 익는다./ 능금처럼 내 마음이 익는다.”에서와 같이 높은 곳에 있는 “하늘”과 시인 자신이 동화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 이는 이상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인의 욕구이며, 이 욕구는 식물과 모든 들짐승이 어우러져 사는 낙원으로 하늘과 동일선상에 놓여있는 자신을 묘사하고 있으며, 시인의 진정한 행복은 우주적인 몽상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체득하는 것이다. 다음 시 「천태산 상대」에서도 신성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먼 항하사
영겁을 바람부는 별과 별의
흔들림

31) James L. Calderwood(ed), *Forwards of Poetry*(Prentice. Hall, INC), 1968, p.9.

32) 곽광수·김현, 앞의 책, p.24.

33) Emmanuel Levinas, 강영안 역, 앞의 책, p.52.

그 빛이 어러 산드랴게
화석하는 절벽
무너지는 꽃의 사태
별의 사태
눈부신,
아
하도 홀로 어느 날에 심심하시어
하늘 보좌 잠시 떠나
납시었던 자리

-『천태산 상대』 부분

이 시에서는 저 높은 산에 노니는 절대자를 묘사하고 있다. 수석의 자태가 마치 하나님이 납시어 노닐 만큼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신성화된 돌로 그 자태가 너무도 거룩하여 ‘눈부신’ 모습, 초월화된 모습이다. 돌이라는 광물적인 것이 우주적인 상상력을 통해 초월적으로 승화된 것이다. 돌의 의미는 성경에서 정의의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받았고,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중죄를 지으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는 일 또한 정화의 의미로 박두진의 시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돌’은 정신의 표상이자 일체감을 나타내는 신앙의 상징인 것이다.

날새도 바람결도 일어서 박히고
눈물도 옛날도 일어서 박히고
꿈도 사랑도
달밤도 그 아침해도 일어서 박히고
만남과 그 헤어짐
남과 죽음

영화와 그 몰락
 아우성도 환호도 얼어서 박히고
 비수와 꽃
 깃발도 그 개선가도 얼어서 박히고
 얼어서 박히고…

-『빙벽무한』부분

모든 우주적 질서와 순환, 그리고 인간적 질서가 둘 속에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이 시는 둘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인간적인 흐름이 응결되어 시간의 공간화를 형성하고 있다. 시간은 본래 인간의 유한성을 따르지만 신은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 무한성에 존재한다. 모든 것들이 ‘얼어서 박히고, 박혀서’ 이제는 신성의 세계로 전환되는 시간이다. 따라서 시간의 교점은 신비로운 삶의 영역을 표상하여, 그것은 과거이면서 동시에 미래인 하나의 영원한 현재가 된다. 이러한 박두진의 상상력은 모든 사물을 통합하고 변용시키는 유연성을 체득하고 있으며, 그의 수석채집과 더불어 수석연작시는 자신의 시세계를 구축하는 동력으로서 내면의 성찰이나 초월적인 신앙의 세계를 더욱더 굳히게 된다. 그리하여 그의 시 『십계』를 통해서 윤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기서 너 서 있는 채로 무너지지 말아라/ 거기서 너 서 있는 채로 너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가진 너의 속의 칼을 갈아라” 등 시인은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한 다짐과 명령을 시도한다. 매 행에서 볼 수 있는 반복어인 ‘말아라’의 명령형 어미 속에는 견고한 의지를 내포한 이념지향적인 정신과 태도가 담겨있다. 여기에서 ‘칼’은 외부의 적을 향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부에서 자신의 양심을 감시하고 찌르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한 성찰적인 태도로써 신성을 지향하는 화해의 통로를 끊

임없이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박두진 시에 나타난 상상력의 세 층위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박두진의 시는 자연에 투사된 상상력과 이상향, 현실주의적 자기 강화와 갱신의 상상력, 신성을 향한 화해의 상상력을 통한 자연, 인간, 신의 세 층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상력은 전체를 통해서 각 시기별로 차별성을 갖는다.

1930년대 말은 친일문학이 문학의 전반을 차지하던 암담한 시기이다. 우리민족은 정신사적으로나 문학사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 박두진은 정치·사회나 세계의 흐름보다는 현실에 대한 의분이나 반항의식을 자연에 투사하는 것만이 자신을 구축해내는 일이었으며, 자연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기 사고의 틀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자연의 생명력은 존재의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종교적 이데아와 이상향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시세계에 나타나는 역사의식이나 생명에 대한 긍정의 힘은 죽음까지도 극복해낼 수 있는 의지의 표현으로 작용한다. 그의 시의 근원을 이루는 ‘산’과 ‘해’의 동질성은 높음과 거대함과 영원성을 바탕으로 삶을 삶이게 만드는 존재론적인 힘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해의 이미지는 초기시에서부터 후기시까지 전 시기를 관통하는 상상력으로 개인적, 시대적, 민족적 어둠을 변화시키는 초월의 등가물이다.

현실주의적 자기 강화와 갱신의 상상력에서는 한 인간의 고뇌와 전 인류의 죄악, 그리고 비극을 ‘학’, ‘거미와 성좌’를 통해 비장한 어조로 다루고 있다. 초기 자연시와는 다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신을 표출하고 있으며,

그의 모든 시들에서 변모된 인간중심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시편들이 나타나기에 이른다. 4·19에 대한 시적 인식은 역사의 격변기를 반영하듯이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양상으로 변주된다. 특히 시와 현실의 관계에 대한 격렬한 힘은 사회적 기능과 역할 또는 책임이나 의무를 제기하기도 했으며, ‘거미’이미지를 통해 현실의 부조리와 부패에 대한 직접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것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내는 절규이면서 세상을 향한 눈뜸이고 살아남기 위한 발돋움이다. 여기에서는 초기시의 세계관과 시적 방법론과는 구별되는 중기시의 저항적인 동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신성을 향한 화해의 상상력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기에 이른다. 자연과의 화해는 물론 신앙적으로도 귀의코자 하는 자세를 보인다. ‘돌’은 자연의 정수이자 핵심이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의 세계를 통합하는 복합체로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근원적인 일체감이다. 박두진의 시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돌’은 정신의 표상이자 신앙의 상징으로서 그것은 존재생성의 묘미를 일으키는 이미지의 역동성이 발휘되는 지점이며, 그의 성찰적인 태도와 신성을 지향하는 화해의 통로로써 작용한다.

이렇듯 박두진의 시세계는 초기, 중기, 후기와 관련하여 자연, 인간, 신의 상상력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매 시기마다 위상이나 성격에 따라 차별성은 물론 변증법적인 관계를 통해 층위를 이룬다. 이러한 상상력의 구조는 끊임없이 변주되는 시대를 살아내는 박두진만의 미학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공저, 『청록집』, 을유문화사, 1946.

-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공저, 『해』(제1시집), 청만사, 1949.
 _____, 『오도』(제2시집), 영웅출판사, 1954.
 _____, 『박두진시선』(제3시집), 성문관, 1956.
 _____, 『거미와 성좌』(제4시집), 대한기독교서회, 1961.
 _____, 『인간밀림』(제5시집), 일조각, 1963.
 _____, 『하얀날개』(제6시집), 향린사, 1967.
 _____, 『고산식물』(제7시집), 일지사, 1973.
 _____, 『사도행전』(제8시집), 일지사, 1973.
 _____, 『수석열전』(제9시집), 일지사, 1973.
 _____, 『숙, 수석열전』(제11시집), 일지사, 1976.
 _____, 『야생대』(제12시집), 일조각, 1977.
 _____, 『하늘까지 닿는 소리』(제13시집), 범조사, 1981.
 _____, 『포옹무한』(제14시집), 범조사, 1981.
 _____, 『빙벽을 깬다』(제15시집), 신원문화사, 1991.
 _____, 『폭양에 무릎을 꿇고』(제16시집), 두란노, 1995.
 _____,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97.
 _____, 『시인의 고향』, 범조사, 1958.
 _____, 『시적 번뇌와 시적 목마름』, 신원출판사, 1996.
 _____, 자작시 해설집, 『시와 사랑』, 신흥출판사, 1960.
 _____, 『돌과의 만남』, 청아출판사, 1986.

2. 논문 및 단행본

- 곽광수·김현, 『비슬라르 연구』, 민음사, 1981, p.269.
 김응교, 『박두진의 상상력 연구』, 박이정, p.64.
 김주연, 『아도르노의 문화사회학』, 『예술과 사회』, 민음사, 1979, p.189.
 박이도, 『한국 현대시와 기독교』, 예전사, 1994, pp.131-154.
 박철휘, 『박두진론』, 『서정과 인식』, 이우출판사, 1983, p.134.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서울: 백양당, 1949, p.375.
 송기환, 『한국현대시의 근대성 비판』, 제인앤씨, 2009, p.36.
 신동욱, 『우리시의 짜임과 역사적 인식』, 서광학술자료사, 1993, p.327.
 신익호, 『한국 현대시 연구』, 한국문학사, 1999, pp.157-165.

- 이승하 편저, 『쏟다는 것의 의의』, 『김현승』, 새미, 2006, p.290.
이승훈, 『시론』, 태학사, 2005, p.67.
이유식, 『박두진론- 변모한 시의 지평』, 『현대문학』, 1965, p.87.
조병춘, 『한국현대시평설』, 태학사, 1995, p.324.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서울: 성문각, 1969, p.586.
Donald Crawford, 김문환 역, 『칸트의 미학이론』, 서광사, 1977. p.173.
Emmanuel Levinas,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p.112.
Gaston Bachelard,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p.82.
Jacques Martain, 김태관 역, 『시와 미와 창조적 직관』, 성바오로출판사, 1985, p.198.
James L. Calderwood(ed), Forwards of Poetry(Prentice. Hall, INC), 1968, p.9.

Abstract

Three Spheres of Imagination in Park, Du Jin's Poetry

Jeong, Soog-In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late 1930s in the whole field of literature in the history of ideas as well as the history of literature. This study is intended to discuss national situations in the late 1930s and Park, Du Jin's poetic world until the 1990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his poetry and three spheres of imagination about the relationship among nature, human beings, and God revealed in his poetic world.

Park, Du Jin could build up himself only by projecting distress and conflicts of the times on to nature and the life force of nature leads to the pursuit of an religious idea and Utopia that can contain the essence of existence. To him, nature is power to form a concrete frame of thought as an objective object and works upon positive energy for historical consciousness or life or the expression of intent that can overcome even death.

In the process of realistic self-reinforcement and renewal, he expresses positive and active himself unlike his earlier nature poems. Poetic awareness about 4·19 aims a direct attitude to social functions and roles through a severe poetic sentimen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 poem and reality as if it reflects the transition period of history. It is an outcry of living through the dark age and confirmation of himself.

In the imagination of reconciliation toward divinity, 'stone' represents an original sense of unity as a complex to integrate the world of nature, human beings, and God. To a poet, 'stone' is the representation of mind and a symbol of belief. In other words, it is dynamic expression of an image of creating existence and a pathway of reconciliation that aims divinity.

Park, Du Jin's poetic world is different in every period of the early, middle, and late stages through the structure of imagination and Utopia that are

projected onto nature, the process of realistic self-reinforcement and renewal, and imagination of reconciliation toward divinity. But they make dialectic relationship and form three spheres of imagination. This aspect is unique aesthetic depth and value-oriented world of Park, Du Jin who lived through the transition period and the point that can see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Key Word : Park, Du Jin, Projection, Utopia, Renewal, Reconciliation, Stone, Divinity, Sphere

정숙인

소속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soog-in@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5년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